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한 민 성

조선의 정치철학인 주체사상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리해를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김일성전집》 제65권 399페이지)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리해하자면 그에 앞서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을 어떻게 정의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의 정의에 의하면 인민대중이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 인민대중을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체현하고있는 집단으로 내세우고있다.

여기서 한가지 결론하게 되는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정의방식을 놓고서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탐구하는 주체사상의 고유한 사고방식을 찾아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류사회는 여러 계급과 계층, 사회세력과 집단들로 구성되어있다.

사적소유의 력사가 시작되면서 출현한 지배계급, 착취계급도 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평범한 못인간》, 《빈한한 사람들》로 취급되어온 인민대중이라는 큰 집단도 있다.

이때 어떤 집단과 계급, 계층을 상대로 하여 사람의 본성문제를 논의하는가 하는데 따라 인간의 본성은 다르게 규정될것이다.

만일 사회의 특권층, 지배계급과 착취계급을 놓고 사람의 본성을 찾는다면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 불평등이 합리화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다른 그 어떤 집단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본성을 규정하였다는데 바로 주체사상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보는 주체사상의 관점과 립장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적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목적의식적으로 떠밀어나가는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일어날수 없으며 사회력사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자면 력사의 주체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주체사상에서 력사의 주체라는 말은 사회적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목적의식적으로 떠밀어나가는 담당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운동일반의 담당자가 아니라 사회력사령역에서 진행되는 운동, 사회력사적운동의 담당자이며 운동의 단순한 담당자가 아니라 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목적의식적으로 떠밀어나가는 담당자라는데 바로 력사의 주체의 본질이 있다.

주체사상이 력사의 주체라는 개념을 정립한것은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래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은 주체철학의 중요한 철학적과제의 하나이다.

선행철학에서는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성을 밝히는것이 철학의 중요과제로 되어있었다.

이것은 사회적운동도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진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설정된 문제였다.

이와는 달리 주체사상은 사회적운동이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진다고 보고 그것을 해명하는것을 중요한 철학적과제로 내세웠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기 위하여 정립된 개념이 바로 력사의 주체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운동에 주체가 있다는것을 해명함으로써 자연의 운동과 사회적운동의 근본차이를 명백히 하고있다. 즉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는데 두 운동의 근본차이가 있다.

주체사상에서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이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를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으로 내세우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에서 주체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가장 힘있는 창조적능력의 소유자로 내세우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개별적사람들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개인은 아무리 총명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인류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놓은 지혜와 힘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체현하고있을뿐이다. 오직 인민대중만이 인류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놓은 창조적지혜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자신을 개조해나갈수 있는 창조적힘을 지니고있다.

주체사상은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며 력사가 전진하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 된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는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진리이다.

인민대중은 어느 사회에서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흘러온 력사는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물질적부를 창조한다.

물론 자본가계급도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자기 손으로 물질적부를 창조하지 않는다.

어느 사회에서나 물질적부의 창조자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다.

에짚트의 스�핑크스나 로마의 콜로세움 등 많은 유적들을 놓고볼 때 이것은 착취사회에서 비록 착취자들을 위해 창조된것이지만 실지로는 인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봉건사회에서도 지주들에 의해 착취받았지만 밭을 갈고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일은 농노, 농민들이 하였다.

인민대중은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한다.

인민대중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경험과 물질적조건을 마련할뿐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직접 발전시킨다.

문학예술작품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 《춘향전》이나 유럽의 《롤랑의 노래》, 아시아의 《아라비아의 밤》과 같은 작품들의 창작가는 인민대중이며 셰익스피어, 뿌슈킨의 대작들도 인민대중이 창조한 력사적전설들과 소재들에 근거하여 창작된것들이다.

인민대중은 직접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할뿐아니라 선진적인 사상가, 우수한 과학자, 재능있는 문학예술인들을 배출한다.

착취계급도 저들의 사상문화의 대변자들을 내세우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상문화는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발전을 저해한다.

인민대중은 사회도 개조한다.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로,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로 사회가 발전하여온 과정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였다.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사회의 개조가 아니라 낡은 착취제도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데만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회의 진보적인 개조는 오직 각성되고 단합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 세상 전부를 대표한다고도 할수 있는 인민이라는 거대한 집단은 항상 력사의 수레바퀴를 진두에서 성실하게 굴러왔다.

그 력사에 거북선이 필요하면 거북선을 만들었고 피라미드가 필요하면 피라미드를 쌓았다. 시대가 피를 요구할 때 인민은 육탄이 되어 서슴없이 화구앞으로 죽음을 맞받아나갔다.

매 민족의 력사에 이름을 남긴 명장들이나 영웅호걸, 뛰어난 인물들의 공적도 인민대중의 노력과 헌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조선의 속담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민대중이 조국을 지켜 영용하게 싸우

지 않았더라면 애국명장들도 력사에 이름을 남길수 없었을것이다.

전쟁승리에서 결정적역할을 한것은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사랑하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대중이었다.

력사는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력사가 발전할수 없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과학적으로 밝혀진것은 인류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에도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사상가들은 지배계급을 력사의 《주인》으로 찬미하였다. 전쟁승리의 기록과 웅장하고 화려한 문명의 탑에 대한 기록에도 《영웅》들과 왕, 지배자들의 이름만 있고 그것을 이룩한 인민의 이름은 새겨지지 않았다. 쇠사슬에 매인 노예, 땅의 노예, 자본의 노예, 이것이 인민대중의 이름이였고 운명이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운것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력사의 대상으로서의 노예의 처지로부터 력사의 주인의 지위에 올려세운 인류사적공적이라고 결론하지 않을수 없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정확히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가 펼쳐졌다.

이로써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력사는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과 더불어 영구불멸할 인민대중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중국박사원생)

실마리어 주체사상, 인민대중